

뉴스홈 | **최신기사**

"국회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 조속히 처리해야"

송고시간 I 2022-02-04 10:16



류성무 기자 기자페이지

대구와 군위 시민단체 공동 성명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공 동 성 명 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되면, 통합신공항도 물건너 간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우진단」,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약속하고 합 의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법률안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강력 축

2016년 7월, 대구시가 정부에 대구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한지 4년 만인 2020년 8월, 우어독립 끌에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최종 이전지보 선정 되었다. 최종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은 우보 단독 후보지를 끝까지 희 망하였고 공항 이용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시민들도 현 대구공항 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위군 우보를 내심 바랐었다.

하지만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체의 공동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결정하였다. 군위군민들은 단독후보자인 우보가 아니면 공항 유지 조기를 선인하기도 했으나 대구현입 이라는 카드와 대구·경목의 미래를 550만 시도민의 간절함 때문에 공동 후보자인 소보/비안을 선택했다. 따라서 군위의 대구 편입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없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 군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김 해공항 확장사업이 한순간에 폐기되었고, 우리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 었던 광주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반 보아도 알 수 있다.

공동 성명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550만 시도민의 힘과 지혜물 모아온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심의중이다. 일부 정치인이 사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550만 시도민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동의서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서명을 한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가 달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무산 되기를 바라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4개 고속도로 계획발표, 공항신도시·항공 즐러스터의 밀그림을 완성한다 등의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긲칫국부터 마셔 서는 안된다.

우어곡전 끝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처럼 대구 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임의 약속을 지키고 대구 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다음 기회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물 건너 갈 게 뻔하다.

군위의 대구 편임이 지연되고 대구경복통합신공항 건설이 물건너 간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고 55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 2. .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위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군위 군민은 대구·경북 전체의 공동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공동 후보지 결정을 받아들였다"면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촉구하는 단체장 등 모습. 자료사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이들은 또 정치권을 향해 "일부 정치인들이 다음 기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물 건너갈 것이 뻔하다"면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지연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물 건너 간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550만 시·도민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4 10:16 송고

#군위 #법률안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명상] 곡사포·수송혤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8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讲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